

“도대체 교육부의 존재 이유는 뭔가?”

김승환 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안했다며 교육감 14명 고발한 교육부 강력 비판

“도대체 교육부의 존재 이유가 뭔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7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교육감 14명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교육부를 날선 어조로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해당 교육감들을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내린 징계위원회의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김 교육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만약 범죄행위라면 수사기관,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다. 그 판단에 따라 징계 여부, 징계 정도를 결정해도 교육행정 운영과 학교수업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 교육부의 이번 고발이 무리한 것임을 꼬집었다.

김 교육감은 국가권력의 행사, 권한 행사에 꼭 필요한 것으로 절제를 끝낸 뒤, 지난 2013년 6월 27일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소개했다.

김 교육감은 “대법원은 당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했다는 이유로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선고했다”면서 “판결문의 기본 취지는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징계의결요구를 했다고 해서 그대로 귀속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감은 행정기관의 장(경찰청장,



김승환 교육감(왼쪽 두번째)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을 예방해 인사를 하고 있다.

경찰서장, 검찰총장, 검사장에게서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요구를 해야 하지만, 의무적으로 징계의결요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김 교육감은 “당시 대법원도 이 사건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면서 “교사들의 시국선언 행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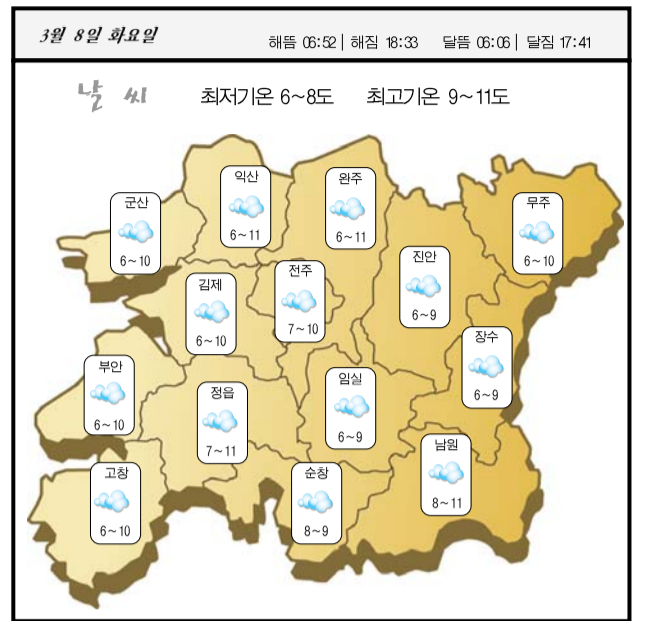
국가공무원법 제86조 위반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처분을 내리게 되면 해당교사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자신의 결정을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교원과 학생을 해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교사

와 교육감들에 대한 고발을 납벌하는) 이같은 교육부의 처신이 교육부 내에서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과연 어떤 자존감과 자기확신을 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충성해야 할 존재는 교사와 아이들, 그리고 국민과 헌법”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일 안하거나 못하는 공무원 최대 파면

인사혁신처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공무원에 최대 파면의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7일 공직사회에 소극행정을 엄단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도 함께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 소극행정이 징계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

을 침해하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업무행태로 정했다.

먼저, 부차위와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한 경우는 비위행위자는 물론 지휘감독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했다.

소극행정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높였다.

다만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징계규정을 개선해 민원인 협력, 보복성 행정조치 등 직권 남용 공무원은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반드시 징계의결요구를 하도록 했다.

관계자는 “이번 징계제도 개선은 공익을 위해 적극적, 능동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한국소리문화전당, '아트 스테이지 소리' 블라인드 티켓 오픈

'아트 스테이지 소리'의 블라인드 티켓이 오는 8일 오픈한다.

7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따르면 오는 4월23일, 5월21일, 6월25일에 전당에서 열리는 '아트 스테이지 소리'가 블라인드 티켓 오픈과 함께 정식 무대에 오른다.

출연진 라인업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하는 블라인드 티켓은 8일 오전 11시부터 약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된다. 30대 한정수량으로 전당 홈페이지와 인터파크에서 10일 오후 6시까지 구매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리문화전당 홈페이지(<http://www.scri21.co.kr>)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전주시 간부공무원, 현안 해법 직접 찾는다

'현장체험 아카데미' 운영... 구청장·과장급 이상 간부 격주에 한번씩 방문

전주시 간부공무원들이 주요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 나선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주요 간부공무원들이 격주에 한번 씩 주요현안 사업 대상지역 및 민원현장을 방문해 해법을 찾는 '현장체험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일선 공무원들이 매일 한 차례 씩 전국 우수사례와 혁신정책을 배우는 '사람의 도시 현장 아카데미'에 이어, 간부 공무원들의 주요현안 사업지역 현장방문으로 시정에 새바람을 일으킨다는 구상이다.

현장 아카데미의 참여 대상은 양 구

청장을 포함한 전주시의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결정을 이끌고 있는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투입된다.

시는 간부공무원들의 현장 방문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을 직접 체험하고 해결방안을 집중 모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정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간부 공무원들이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행정을 실현시킨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같은 간부 공무원들의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문서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보고사에서 탈피, 장애인 저상버스 승차와 청소행정 등 직접 체험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심도 있

는 토론을 통해 현장 속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간부공무원들이 공모사업 지역과 생태도시지역 등 주요사업현장도 방문해 우리시의 주요현안의 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만큼,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협력을 실현시켜 새로운 문제 해결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피드백을 통해 세심하고 현장감 있는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간부공무원을 시작으로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OAK · 공유저작물창조자원화 공동워크숍

국립중앙도서관이 학술자료의 자유로운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오픈 액세스(OA) 운동의 국내외 변화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C) 코리아와 함께 11일 오후 1시30분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지하 3층 대회의실에서 주최하는 '2016 OAK(Open Access Korea) · 공유저작물창조자원화 공동워크숍'을 통해서다.

세계의 오픈 액세스 동향과 시사점을 살펴보고, 한국의 학술지 출판 현

황 분석을 통해 취해야 할 장점과 단점 등을 논의한다.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측면에서 공공기관에 의한 연구 성과물을 공유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찾아본다.

워크숍 주제는 '오픈 액세스와 국내 공공저작물의 공유 확산'으로 정했다. 학술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정부기관 대학 학회, 도서관 연구자들이 대상으로 오픈 액세스의 세계적 인 동향을 알리고 공공기관에 의한 연구 성과물을 공유 확산 방안을 논의한다. /정해은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2016년 4월 GRAND OPEN
 ◆사전운영기간 2015. 9 ~ 2016. 3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빼어난 백두대간의 모든 것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권역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을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울영상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www.eco-edu.or.kr

남원시 운봉읍 운봉로 159-9 /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5760